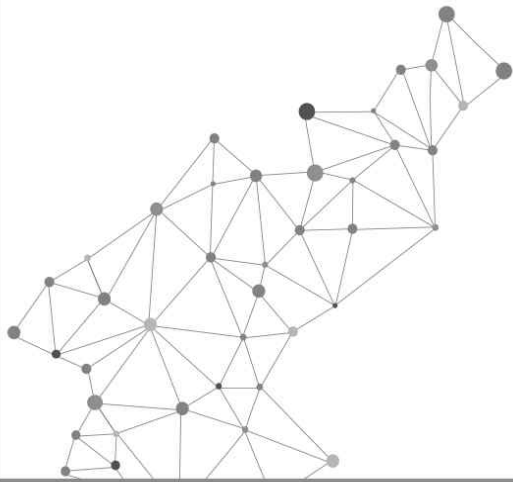


부문별 주요 기사

12월 1일 ~ 12월 31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12월 1일~12월 31일

대내경제 68

〈주민생활〉

김정은 지난해해 대외활동 감소

〈농업 및 식량〉

작황 부진에도 식량가격 하락

〈경제개발구〉

나선 특구 위축, 평양 외각 새로운 경제개발구 설립

〈에너지〉

진화하는 교통수단과 원유값 하락

〈남북관계〉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인도적 지원

대외경제 70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만장일치로 채택

대북교역 중단에 나서는 국가 수 늘어나

〈북중관계〉

대북제재 이후 북중교역 변화

〈북러관계〉

러시아, 北원유공급 포착

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 제한

대내경제

<주민생활>

연합뉴스(12.3, 12.9), news1(12.29)

김정은 지난 한 해 대외활동 감소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2012년 집권 이후 2017년 한 해 가장 적었다는 보도입. 2013년 212회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에는 94회로 전년대비 30% 감소함. 공개 활동 중 42회는 군사관련, 26회는 경제활동으로 집계됨. 지난 3일에는 이동식 발사차량 타이어를 생산하는 '압록강타이어공장'을 시찰하였으며, 재차 자력갱생과 자체생산력 강화를 강조함. 지난 9일에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과 백두산에 올랐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백두산 방문 후 삼지연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개건된 여관, 종합상점, 신축 주택, 완공을 앞둔 삼지연 청년역과 삼지연못가역 등을 시찰함.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백두산은 정치적 혁명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최측근 인사들을 대동하여 국정방향에 대한 구상을 한 것이라는 분석입.

<농업 및 식량>

VOA(12.7, 12.8), RFA(12.11)

작황 부진에도 식량가격 하락

FAO가 7일 발표한 '식량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140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8%, 2013~15년 평균 생산량에 비해 12.5% 감소하였음. 작황 부진은 올해 비정상적으로 건조했던 날씨의 영향 때문임. 북한이 내년까지 소비할 수 있는 쌀과 강냉이의 양은 유엔 일일 권장량의 6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AO는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국가에 포함시킴.

그러나 예년보다 적은 식량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마당의 식량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 통상 겨울철에는 식량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쌀 가격이 kg 당 1천 원 정도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내부 소식통들은 당국이 유사시에 쓸 비축식량을 풀고, 국가기관이 식량밀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함.

<경제개발구>

RFA(12.6), 헤럴드경제(12.21), 조선일보(12.26)

나선 특구 위축, 평양 외각 새로운 경제개발구 설립

유엔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나선경제특구에 진출했던 많은 외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떠나고 있음. 중국이 투자한 현지 시멘트 공장 간부의 증언에 따르면 북중간 교역 뿐 아니라 송금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함. 그러한 가운데 북한당국은 2015년 이후 2년 만에 평양시 외곽의 강남군 고읍리 지역을 새로운 경제개발구로 지정하기로 발표함.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발표에 앞서 5년 만에 당 최하부 조직 책임자들을 소집하여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를 열고, 대북제재에 맞서기 위한 체제 결속과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 바에 따라 경제개발구 지정 재개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에너지 및 운수>

매일경제(12.4), 문화일보(12.6), 데일리NK(12.20)

진화하는 교통수단과 원유값 급락

북한 시장의 진전과 함께 버스, 택시,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로 연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이용요금은 비교적 안정되고, 오히려 수요에 맞게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개인 운송수단 이용 가격은 모두 국영열차보다 100배 정도 비싸지만 빠르다는 장점이 분명함. 올해 특히 각광받고 있는 것은 경운기와 유사한 '손 프락포르'로 무역과 밀수를 통해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도시에서 좁은 길을 이용할 때, 농촌에서 알곡을 거둬들일 때 유용하게 쓰인다고 전함. 북한에서 각종 차량을 등록 할 때는 국영 명의를 필수적이고 수익금을 바쳐야 하는 구조로 이동 수단을 통해서도 통치 자금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알 수 있음.

한편 북한 내 연유 가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직후 중국이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크게 줄이면서 급등하였으나 12월 들어 지난달 초와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해짐. 디젤유는 지난달 초 보다 60% 이상, 휘발유는 25%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내부 소식통들은 상승세이던 연유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선 것은 러시아 국경을 통해 막대한 양의 연료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남북관계〉

서울경제(12.1), 동아일보(12.4), 아시아경제(12.26, 12.28)

남북협력기금 예산과 인도적 지원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북한의 잇단 도발로 당초 정부안 보다 삭감된 9,624억 원으로 확정됨.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른 새 사업들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약 87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대외경제

〈대북제재〉

연합뉴스(12.3), VOA(12.8), 연합뉴스(12.14), VOA(12.18), 중앙일보(12.21), RFA(12.22), VOA, 동아일보, 연합뉴스(12.23), 중앙일보(12.25), 매일경제, 연합뉴스, 조선일보(12.26), 뉴데일리(12.30)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 만장일치로 채택

11월 29일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하여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연중 네 번째 대북제재인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이번 결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2375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북 연간 정유제품 공급량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제한함. 대북 연유공급의 경우 현 수준에서의 동결을 400만 배럴로 명문화하여 구체적인 상한선이 정해짐. 이 밖에 기존 북한 노동자의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 금지와 연장 불허에서 유엔 회원국 내 북한 노동자 전원을 2019년 말까지(24개월 내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으로 제재 내용을 강화하였으며,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식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하고 해상차단 조치 강화를 포함함.

중국은 대북 결의를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자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1월 9일까지 모두 폐쇄하도록 명령 했으며 이에 실제로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단동 소재 북한 식당이 영업을 중단하는 모습들이 관찰되는 등 중국이 과거에 비해 이례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임.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 행보 이면에는 지난 11월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약속과 함께 북한 체제 붕괴 등의 유사시 핵무기와 미사일, 난민 발생 문제 등 정보 교환을 위해서 북한을 관찰하는 미중 군사 담당 부문의 정기적 회의와 직통전화(핫라인) 개설을 합의 했다는 보도임. 그러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유류와 화물을 밀교역 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 대북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됨.

대북교역 중단에 나서는 국가 수 늘어나

12월 기준으로 대북교역을 중단한 국가는 6국인 것으로 알려짐. 그 중 북한 외화벌이의 거점 역할을 했던 나라로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는 지난 11월 북한과의 상업적 교역을 전면 중단한 이후 합작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대북 투자와 금융 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임. 태국은 과거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은 북한의 4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8년 만에 유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태국 상무부는 자국의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며 올해 연말 시점에 양국간 수출입 무역이 실적 없을 것으로 발표함. 실제로 2017년 상반기 북한과 태국간 무역규모는 150만달러로 작년 동기간 무역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도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주요 대북 수출은 석유제품, 의료 장비 등 약 38,000만 달러 였으며, 대북 수입은 720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설명함.

<북중관계>

매일경제, 연합뉴스(12.23), RFA, VOA(12.26)

대북제재 이후 북중교역 변화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11월 북중 무역액은 총 3억 8천 8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12.5%, 작년 동기 대비 3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북한의 11월 대중 수출의 경우 전월(9천 75만 달러) 대비 소폭 상승한 1억 18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보다 61.8%

줄어든 수치이며 2014년 1월 이후 3년 9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함.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월 보다 17.9% 상승한 2억 8천 784만 달러임. 이에 11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1억 8천 800만 달러를 기록함.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하에 북한 광물, 농산물, 기계, 목재류 등이 금수 품목으로 지정 되어 북한 무역회사와 일반주민들이 새로운 수출품 모색에 나서고 있는 모습임. 예로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북한산 한약재, 약초, 잣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기관에서는 가발생산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임.

<대러관계>

연합뉴스(12.11), Newsis(12.29), 이데일리(12.31), 한국일보(12.31)

러시아, 北에 급유 공급 포착

유엔안보리 제재로 선박 간 이전이 금지되고, 대북원유·정유제품 수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러시아 선박(비티아즈 호)이 공해상에서 지난 12월 10~11일 사이 북한의 유조선 ‘삼마 2’호에 선박 간 유류를 공급했다는 보도임. ‘삼마 2호’는 지난 11월 29일 미국이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청한 10척의 선박에 포함되어있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제외된 선박임.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 선박도 선박 간 이 전이 포착되어 미국과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석유공급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힘. 러시아 외교부는 안보리결의 2397호가 원료공급을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쿼터를 둔 것이라고 강조함.

러시아 파견 北노동자 제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2375호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북한노동자의 활동이 어려워짐. 러시아의 경우 당장 신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금지했으며, 연해주 지방정부의 북한 노동자 9,000명에 대한 노동 허가 요청을 거부함. 2018년 노동자 쿼터에도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할당은 없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는 밝힘. 러시아 전역 약 3만 5천~7천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연해주 지방은 약 1만명으로 집계됨. 하지만, 기존의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러시아 노동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음. 북한 노동자들은 보통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으며 주로 건설, 농업, 서비스 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는 보도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RFA(12.1, 12.20), VOA(12.19)

아래 표는 12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UN, 세계각국	2017년 한 해	지원금	3,844만달러	한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인도주의 지원금(지난해에 비해 22% 감소한 규모)
WFP	2018년	지원예산 (北 포함 아시아 국가 대상)	5억 7,000만달러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식량 지원 예산으로 책정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프랑스 국제 구호단체)	2017년 4월~ 2019년 3월 (계속 진행 사업)	역량강화 사업	고령자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 단체 역량 강화	노인단체 지원 사업 전국 단위로 확대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12.01] 남북협력기금 9,624억으로 줄어…朴 정부때보다 적어 (서울경제)
- [2017.12.01] WFP “내년 북 포함 아시아에 5억 7천만 달러 식량지원” (RFA)
- [2017.12.03] 북한과 교역 중단 싱가포르, 대북제재 '사각지대'도 색출 (연합뉴스)
- [2017.12.03] 北김정은 “뚫지 못할 난관없어” 미사일발사차량 타이어공장 시찰 (연합뉴스)
- [2017.12.04] 통일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 변함없어” (동아일보)
- [2017.12.04] “北 시장서 디젤유·휘발유값, 지난달 초보다 크게 하락” (매일경제)
- [2017.12.06] 북 나선특구 제재 직격탄…평양엔 재건축 한창 (RFA)
- [2017.12.06] “北 석유값, 제재로 치솟다 급락…러시아서 막대한 양 연료 공급” (문화일보)
- [2017.12.07] FAO, 북한 올해 쌀 140만t 수확…지난해 대비 30만t 감소 (VOA)
- [2017.12.08] 대북교역 단절 국가 무역총액 1억2천만 달러…전체 1/65 수준 (VOA)
- [2017.12.08] 유엔, 북한 식량부족국 재지정…올해 46만t 부족 (VOA)
- [2017.12.09] 北김정은, 백두산 올라…삼지연읍 주요시설도 시찰 (연합뉴스)
- [2017.12.11] 겨울에 이례적으로 북 식량가격 하락 (RFA)
- [2017.12.11] 러 “내년 北노동자 쿼터 없어…기존 허가자는 계속 일할 것” (연합뉴스)
- [2017.12.14] 태국 상무부 “북한과 교역 급감…연말이면 제로” (연합뉴스)
- [2017.12.18] 미국, 싱가포르와 대량살상무기 논의…대북제재 중요성 공감 (VOA)
- [2017.12.19] 올해 국제사회 대북지원 22% 감소…공여국도 절반으로 줄어 (VOA)
- [2017.12.20] “기름값 올라도 요금은 안정” 진화하는 北 교통수단 (데일리NK)
- [2017.12.20] 제재 강화에도 프NGO 대북지원 계획대로 (RFA)
- [2017.12.21]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북한과 교역 전면 중단 발표 (중앙일보)
- [2017.12.21] 北 “우리 앞 난국 엄혹”…제재 대응위해 5년만에 당세포대회 열어 (헤럴드경제)
- [2017.12.22] 안보리, ‘정유 제품 90% 차단’ 새 대북 제재 결의 채택 (RFA)
- [2017.12.23] [기자문답]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의미와 파장 (VOA)
- [2017.12.23] 북중무역 11월도 올해 최저수준…제재여파로 작년 반토막 (매일경제)
- [2017.12.23] 안보리 “대북 정유공급 90% 차단” (동아일보)
- [2017.12.23] [표]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주요내용 (연합뉴스)
- [2017.12.23] 中 11월 대북무역 올해 최저수준…제재여파로 작년 반토막 (연합뉴스)
- [2017.12.25] 중국북부전구-주한미군 北 유사시 대비 핫라인 설치 (중앙일보)
- [2017.12.26] 북, 수출품 전환·밀수로 제재 타개 모색 (RFA)
- [2017.12.26] '북한 돈줄 차단' 요청받은 태국, 물적·인적교류 사실상 중단 (연합뉴스)

- [2017.12.26] 중국, 11월 대북무역 크게 감소…지난해 보다 37% 줄어 (VOA)
- [2017.12.26] 평양도 강남 개발…‘경제 특구’ 만든다 (조선일보)
- [2017.12.26] 北·中, 서해상서 30여차례 유류 밀거래… 美위성에 딱 걸렸다 (조선일보)
- [2017.12.29] 러, 北노동자 9,000여명 신규 노동허가 발급 거부 (Newsis)
- [2017.12.29] 北김정은 올해 공개활동 94회…2012년 집권 이후 최저 (news1)
- [2017.12.30] 주한미군-중공군, 유사시 대비 핫라인 설치 (뉴데일리)
- [2017.12.31] 러시아도 북에 원유 공급…미 대중 무역 압박 본격화할 듯 (한국일보)
- [2017.12.31] 미·중, 北유류 공급 블랙리스트 선정 놓고 정면 충돌 (이데일리)